



2026. 5. 8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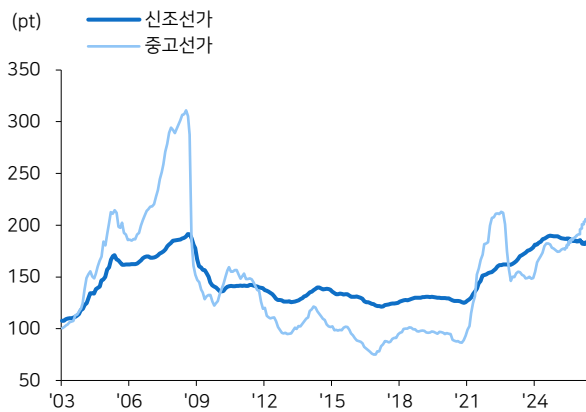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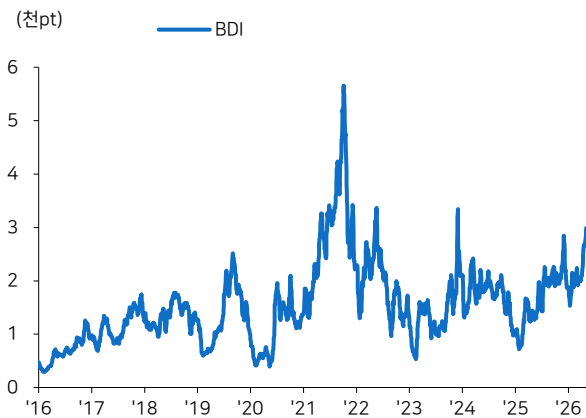
신조선가 183.5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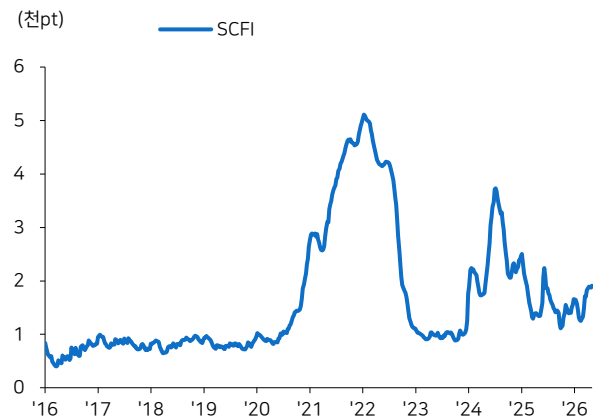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09.0달러 (+5.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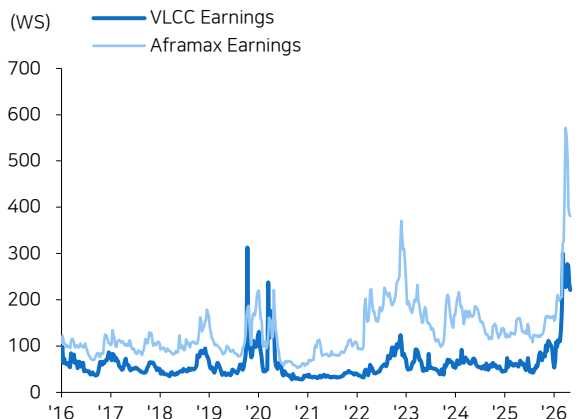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991.0p (+159.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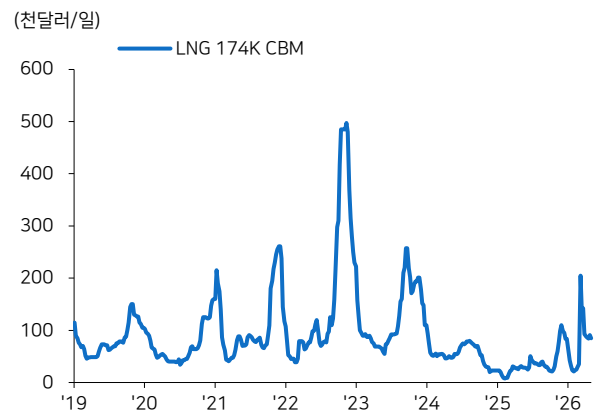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911.4(+36.1 WoW)



VLCC Spot Rate 220.8WS (-13.3p WoW)



LNG Spot 운임 85.0천달러 (-6.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해군 차세대 해양정보함 기본설계, HD 현대중공업만 입찰 (뉴스 1)

<https://zrr.kr/Crp4B1>

2035년까지 차세대 해양정보함 2척을 도입하는 총 1조 9,700억 원 규모의 '해양정보함(AGX)-III' 기본설계 사업에 한국의 HD현대중공업이 단독 입찰했다고 보도됨. 지난 1차 공고 유찰 이후 진행된 이번 재입찰에서 한화오션이 불참함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제안서 평가를 거쳐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관례에 따라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향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까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짐. 이번 사업은 HD현대중공업에 적용 중인 보안 감점의 유효 기간에 대한 업체와 방사청 간의 해석 차이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번 제안서 평가 결과가 향후 KDDX 등 대형 함정 수주전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으로 알려짐.

한화 방산, 美 국방 고위인사단 본사 초청...양국 협력 논의 (뉴스 1)

<https://zrr.kr/cGH4RW>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한화 방산 3사가 해리 해리스 전 미국 태평양사령관을 포함한 미국 국방 고위 인사단 20여 명을 초청해 양국 간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됨. 한화 경영진은 지상·항공·해양 분야의 무기체계 역량과 글로벌 사업 비전을 소개하며 한미 동맹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공유했으며, 미국 측 인사들은 한화의 방산 역량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해짐. 현재 한화는 엘라배마주 K9 자주포 생산 거점 마련 및 필리조션소를 통한 조선 협력 프로젝트 등을 추진 중이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지 투자와 기술 협력을 통한 양국 방위산업의 동반 성장 모델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K 방산 밀착' 美 안두릴, HD 현대 무인함정 입찰 연내 결실 기대 (더구루)

<https://zrr.kr/4GFbQW>

미국 AI 방산기업 Anduril Industries가 HD현대중공업, 대한항공 등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무인 무기체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됨. 브라이언 쉼프 CEO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HD현대중공업과 공동 개발 중인 무인수상정(USV) 시제함을 1년 내 운용할 계획이며, 안두릴의 AI 운영체계 'Lattice'를 탑재해 오는 9월경 미 해군 공급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해짐. Anduril은 한국의 신속한 제조 역량과 자사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해 무인기 및 지상 유무인복합체계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을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핵심 전략 거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알려짐.

한화 필리조션소, 美 맷슨 발주 '알로하급 컨선' 건조 속도 (더구루)

<https://zrr.kr/qom6xi>

한화필리조션소가 미국 선사 Matson으로부터 수주한 '알로하 클래스(Aloha-class)'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3척의 건조 공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됨. 최근 두 번째 선박의 선체 조립과 세 번째 선박의 강재 절단식을 동시에 진행했으며, 2022년 약 1조 4,400억 원 규모로 발주된 이 선박들은 내년 1분기 첫 호선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전해짐. 해당 선박들은 미국 연안무역법인 존슨법(Jones Act)을 준수하여 건조되며, 이중 연료 엔진과 Corvus Energy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을 탑재해 연료 효율과 친환경 성능을 높임으로써 Matson의 태평양 노선 운송 역량을 강화한다고 알려짐.

QatarEnergy extends force majeure for key European customer as Strait of Hormuz disruption bites (Upstream)

<https://zrr.kr/jxX8Tm>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인 QatarEnergy가 이란의 드론 공격에 따른 불가항력(Force Majeure) 선언을 연장하며 이탈리아 Edison으로의 LNG 공급 차질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됨. Edison은 기존 10척에 이어 오는 7월 초까지 인도 예정이던 LNG 화물 2척이 추가로 지연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연간 계약 물량의 약 3분의 1 수준까지 공급이 줄어들 전망으로 전해짐. 다만 Edison은 포트폴리오 관리 등 대체 물량 확보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 대한 영향은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인도 Petronet LNG 등 카타르와 장기 계약을 맺은 글로벌 주요 고객사들 역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공급 중단 여파를 겪고 있다고 알려짐.

EU weighs up suspending flaring penalties amid global energy disruptions (Upstream)

<https://zrr.kr/jxUK6E>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주요 LNG 수출국 및 업계의 압박과 에너지 안보 우려를 고려하여, 논란이 되었던 메탄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됨. 2027년부터 EU로 수입되는 LNG에 대해 엄격한 메탄 모니터링 규정을 적용하고 위반 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새로운 지침 초안에 따르면 에너지 안보 상황이나 화물 확보 가능성 등에 따라 각국 정부가 사례별로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전해짐. 이는 카타르와 미국 정부, 그리고 수출 기업들이 해당 규제가 비현실적이며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낮추려는 유럽의 LNG 수입을 사실상 차단할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발해 온 결과로, 업계는 수입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채굴 과정의 배출량까지 책임지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